

# 월드컵과 논술

인습의 타성적 고리를 끊고 발상 전환해야



글\_ 백준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부설 토론훈교육연구소장

이번 독일 월드컵 첫 상대였던 토고전은 짜릿했다. 전반 선취 골을 허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후반에 연속 두 골을 성공시켜 역전했을 때의 기쁨은 축구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열광하게 만드는지 새삼 확인하게 할 만큼 기분 좋은 것이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이 역전패한 바로 다음 날 낚은 승리여서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우리가 본선 진출 후 해외에서 따낸 최초의 승리라지 않는가? 제3국의 척박한 조건에서 일군 성과였기에 가치는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팀이 16강 진출은 물론, 더 나아가 우승컵까지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 어디 한 두 사람뿐이었겠는가?

사실 이 지구촌 축제를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2002년에 비해 여러 모로 약하다는 것이었다.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하는 흥명보 같은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 불안하다는 등, 체력이나 기술이 예년만 못하다는 등, 해외파와 국내파의 호흡이 문제라는 등 여러 말이 있었고 뒤따르는 걱정도 있었다. 토고 전 승리는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 내었다. 물론 한 게임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승리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토고 전 승리의 비결은 과거의 시슬을 끊어버리는 과감한 혁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조건에는 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습관적 타성에 빠져 있었다면 결코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전엔 못했지만 이번엔 이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

습의 타성적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한국 팀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조건과 제시된 논제에 만족해서 이를 깨뜨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글은 타성에 빠진다. 타성에 빠진 글은 밋밋하고 뻔뻔해진다. 논술 설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글자 그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찾아 제시하라는 의미이다. 어정쩡한 타협책은 차라리 제시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양시양비(兩是兩非)론을 강조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어중간한 타협책을 선택하면 글의 맛이 푹 떨어진다.

다음 글을 보자. 민사고 2학년 학생이 쓴 2학기 중간고사 문제 답안으로, 논제는 자연 보호와 개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대학 입학시험의 단골 주제가기도 한 환경 보호론과 개발론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현재적 대립의 한 각(角)이기 때문에 되풀이 출제되곤 한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는 인간이 자연과 평화로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전통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라다크라 불리는 이 사회는 본디 그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연장을 사용하여 농경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청정한 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개발 정책에 따라 서구적 개발 모델이 도입되면서 라다크는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 오늘날 서구식 개발 지상주의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얻은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고 파멸해가는 지역 공동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현대인들에게 자

논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조건과 제시된 논제에 만족해서 이를 깨뜨리려는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글은 타성에 빠진다. 타성에 빠진 글은 밋밋하고 뻣뻣해진다. 논술 설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글자 그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찾아 제시하라는 의미이다.

연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개발 지상주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격리시킴으로써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나아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빈틈없이 짜인 업무 구조는 삶의 여유를 박탈하고 삭막한 경쟁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것은 자연과 유리된 인간이 겪는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 파괴는 최근 들어 대형 자연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당한 쓰나미 등 자연 재해는 과도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자연의 참상은 영화 '투머로우'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에서 흑한에 견디기 위해 뉴욕 도서관의 귀중한 장서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어 뿔감으로 써버리는 모습은 인간의 오만한 지성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은 폐해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 및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베이컨이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규정하였듯이 효율성에 집착해 온 인간의 '계산적 이성'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개발함으로써 그것이 낳은 폐해를 돌이켜 볼 줄 아는 '성찰적 이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 파괴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천인합일'적 세계관과 같은 일원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자연과 인간을 조화로운 공존하는 관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발 지상주의의 폐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 기업 경영, '라다크 프로젝트'와 같은 환경론적 시민 운동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윤 추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개발 지상주의는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 파멸의 우려를 낳게 한다. 이를 반성하여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식 아래 자연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지구는 비로소 인류와의 공존을 모색할 것이다.

50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직은 생각이 영글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의 짜임과 단어 사용, 문맥의 흐름과 전개 등이 대체로 깔끔하다. 라다크의 생활에 대해 쓴 인상적 도입부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논지로 연결시키는 솜씨도 빼어나다. '사무실 중후군'이나 영화 '투머로우' 등을 예시로 들어 폭넓은 사고의 범위를 보여준 것도 점수를 얻을 만하다. 더욱이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계산적 이성과 반성적, 성찰적 이성을 대비시켜 글을 안정시킨 것도 괜찮다. 비록 중후반부에 쓰나미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 한 가지로 단정하는 듯한 점이 옥의 티이기는 하지만, 고 2 학생에게 단박 완전함을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대개 이 정도만 쓸 수 있어도 어디 가서 찬밥 신세는 면한다. 논술 대회라면 아마 입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다. 말하자면 16강 진출은 가능하나 우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정적 한계는 대안이 진부하다는데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답안의 대부분이 해결책을 동양적 사고에서 찾는다.

도덕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는 탓도 있지만, 뭔가 참신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치열한 사고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우승은 16강 진출과는 또 다른 문제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된다. 과거의 타성과 고리를 끊는 역세고 강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 없이 궁극의 승리는 요원하다. 월드컵과 논술은 이래서 서로 통한다. **한**